“신산업·신기술 활성화 걸림돌 없애겠다”

문대통령 규제혁신 토론회
“법령 없이 32% 개선 가능
시범사업 적극 검토를
공무원 사회도 개혁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을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핵심인 신기술·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온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며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와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과감한 규제혁신을 주문했는데도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듯 구체적 사례를 들어 규제혁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자동차를 육성하자면서 1, 2인승 초소형 전기차를 한동안 출시하지 못했다”며 “외국에서 단거리 운송용으로 널리 사용되는데도 국내에서는 기존 자동차 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출시를 못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륜 전기자동차 같은 새로운 창의적 형태의 자동차 출시를 제한하고 있는데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동작업장 안에 사람이 있으면 로봇은 반드시 정지상태여야 한다는 규정도 마찬가지”라면서 “이 규제 때문에 사람과 로봇이 공동작업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가 핀테크,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을 조사를 해보니 지난 1년 사이 규제 때문에 사업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절반이나 됐다”며 “특히 핀테크 분야는 7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규제 개선 과제를 분석해보니 법령이나 제도 개선 없이 부처의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했다”고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혁명적 접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근본 단계에서부터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주길 바란다”며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 성패의 키를 쥔 공무원 사회의 관행까지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규제 개선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며 현장 목소리를 외면해 온 일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관행을 고치고 잘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공무원들의 의욕을 북돋우면서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후에 감사나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창출하는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보상을 해주는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의 (남북) 대화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아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평창올림픽 덕분에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 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대화가 한창인 와중에 대화 지속 여부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경각심을 드러낸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어렵사리 만들어낸 남북화해의 계기를 잘 살려 한반도 평화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욱기자 tuim@

문대통령 국정 지지율 66%

리얼미터, 가상화폐 논란에 하락…국민·바른 통합당 9.9%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며 6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19일 전국 성인 250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4.6%포인트(p) 내린 66.0%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5%p 오른 29.3%, 무응답은 4.7%로 각각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가상화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야당의 총공세가 집중됐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표적수사 주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성명 발표로 전·현 정권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어지러운 정국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8.3%를 기록해 6주 만에 40%대로 떨어졌고, 이어 자유한국당 18.1%, 국민의당 5.9%, 바른정당 5.7%, 정의당 5.4% 순이었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당은 9.9%(-0.8%p)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하락했는데, 이는 현재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지율 합계보다 1.7%p 낮은 것이다. /김형호기자 khh@

홍준표 “좌파 폭주 저지”

한국당 신년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2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혼란과 퇴행의 원인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좌파 국가주의”라며 “좌파 국가주의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 국가주의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등과 관련해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전형적인 국가주의의 산물”이라며 “국민적 논의도 없이 금강산에서 전야제를 열고 태극기도 애국가도 없는 올림픽 경기를 만드는 것 역시 국민은 무조건 따르라는 국가주의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혼선에 대해선 “강압적 규제와 오락가락 정책으로 청년을 빚더미에 앉혀 놓은 것도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무시하고 국가가 개인의 삶까지 규제하겠다는 교조적 국가주의가 빚어낸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특히 6월 지방선거를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폭주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선거”라고 규정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무너진다면 이 정권은 좌파 광풍으로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국민께 실망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새롭게 바꿔 나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형호기자 khh@

이정미 “제 1야당 도약”

정의당 신년 기자회견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2일 올해 지방선거를 계기로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새로운 제1야당으로 도약해 정치판도를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창당 이후 최초로 두자릿수 지지율을 목표로 뛰어 제1야당으로서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답답한 한국 정치, 이제 사이다 같은 정치개혁으로 시원하게 바꿔야 한다. 이번 제7회 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정치구도를 바꾸는 중대한 전초전’이다”며 “민주주의에서 1당 지배는 불가능하며, 모든 개혁에는 ‘경쟁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견제·견인할 제1야당으로 권력 금단증상에 빠져 사태파악도 못하는 자유한국당이 어울리는가, (아니면) 목표도 운명도 불분명한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들겠다며 내부의 사생결단에 빠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울리는가”라고 물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 목표와 관련해 “전체 광역의회에 1인 이상의 당선자를 내고, 모든 기초의회에도 당선자를 내서 지방 적폐를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지난 대선 정권교체의 절박한 심정으로 차마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지 못했던 분이라면 이번에는 정의당을 선택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당정 “자살과 교통·산재 사고 사망 절반으로”

2022년까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

당정은 오는 2022년까지 자살, 교통안전, 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회의를 열어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全)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운전면허 합격 기준 상향, 발주업체·원청 안전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생명과 관련한 부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취약한 3대 부분(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을 향후 5년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먼저 과학적이고 실증적 분석에 기반을 둔 자살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자살위험자의 특징과 자살시도 행위 패턴 등을 분석하고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사람 우선 중심, 예방적 안전관리 위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간 협업체계로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해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사고율이 높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형차량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첨단기술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안전 대책으로는 운전면허 합격 기준 상향 및 교통안전 문항 확대, 고령자 안전운전 대책 강화, 음주 운전 단속기준 강화, 음주 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규정 마련, 교통안전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도 담겼다.

아울러 당정은 산업안전을 위해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획, 설계 등 공사단계별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해 공공 발주기관부터 우선 적용한다”며 “원청의 역할 확대를 위해 안전관리 책임장소 확대, 고유해·위험 작업 도급 금지, 원·하청 재해율 통합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26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0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 악 학 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7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10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 6(토) ~ 1. 9(화)
• 전 형 일 : 2018. 1. 16(화)

편 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일반편입(3학년)	모집인원: 정원외 학사편입(3학년)	모집인원: 정원외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7(수)
• 전형일 : 2018. 1. 23(화)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 (주·야)	3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 (주·야)	6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 17(수)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1. 23(화) 오후 2시 30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8. 1. 26(금) ~ 2. 2(금)
②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8. 2. 6(화) 오후 2:30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	2018. 2. 6(화) 오후 2:40
	석사	신학과(Th.M.)	○○	2018. 2. 6(화)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M.Ed.)	○	2018. 2. 6(화) 오후 2:4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